



면면이 법등 밝혀 온 스승들의 자취는 허공 가득하고

견성성불의 도량 직지사

조계종 제8교구본사 황악산 직지사는 그 이름에서 많은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이라는 말은 선불교의 핵심입니다. 이런저런 사변(思辨)에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마음을 꿰뚫어 불성(佛性)을 증득하는 것이 선의 본질입니다. 말하자면, 직지사는 선의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한 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선불교가 전래되기 훨씬 이전인 5세기 초엽에 처음 지어진 절이라는 창건 배경을 보면 선불교와는 다른 인연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직지사 홈페이지(www.jikjisa.or.kr)에서는 절의 이름과 관련된 연원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본사(本寺)의 초창(草創)은 신라 눌지왕(訥祗王) 2년(418) 아도 화상(阿道和尚)에 의하여 도리사(桃李寺)와 함께 개창(開創)됐다. 그 사명(寺名)을 직지(直指)라 함은 직지인심견성성불(直指人心見性成佛)이라는 선종(禪宗)의 가르침에서 유래했다고 하며, 또 일설에는 창건주(創建主) 아도 화상이 일선군(一善郡, 善山) 냉산(冷山)에 도리사를 건립하고 멀리 감천의 황악산을 가리키면서 '저 산 아래도 절을 지을 길상지(吉祥之地)가 있다'고 했으므로 직지사(直指寺)라 이름했다는 전설(傳說)도 있다. 또는



감천 직지사 대웅전 모습

고려의 능여 화상이 직지사를 중창할 때 자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자기 손으로 축지(測地)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란 설도 있다.”

사찰의 역사적 연원을 읽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기록 속에 전하는 의미입니다. 직지사는 오랜 역사를 두고 부처님의 종지를 밝히고, 밝은 가르침을 전하는 사명에 신명을 바친 도량으로 한국불교의 대간을 이루어 왔습니다. 외형으로서의 사찰은 시절인연에 따라 흥성과 쇠락을 거듭하는 것이지만, 불조의 해명을 받들어 밝히는 수행과 전법의 화하는 상전벽해(桑田碧海)가 거듭되어도 결코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황악산 비로봉(1111m)을 중심으로 왼쪽으로부터 망월봉 신선봉 형제봉 선유봉 백운봉 운수봉 천룡봉이 소쿠리의 테두리처럼 외호하는 가운데 직지사와 산내 암자들은 오늘날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정맥을 지키는데 소홀함이 없습니다.

일주문, 금강문, 대양문, 사천왕문을 거쳐 만세루 아래로 들어서면 좌우로 3층 석탑을 거느린 대웅전이 있습니다. 법상(法相)에서 찌렁찌렁 사자후를 쏟아내는 조사(祖師)를 만나는 느낌입니다. 석가여래 삼존불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3배를 올리고 나니 취재일정을 뒤로 미루고 하염없이 앉아 있고 싶어집니다. 법당 안의 불상과 불화, 단청과 각종 조각들이 몸도 마음도 내려놓으라고 은근한 손짓을 하는 것만 같아섭니다.

노전과 관음전, 응진전, 비로전을 차례로 돌아 서별당과 다실 앞을 지나니 설법전에서 제4기 사미사미니 수계교육이 열리고 있습니다. 의식 집전을 공부하는 시간인지 영불소리가 낭랑합니다. 저 사미(니)들은 과거 어느 생애서든 한 번 좁은 이 도량에서 수행했을 것이라 생각을 해 봅니다. 꽃이 피었다 지듯, 잎이 피어 낙엽으로 지듯, 직지의 법맥 또한 그렇게 이어져 왔을 것이므로.

직지사 부도밭은 본사를 벗어나 중앙 올라가는 길 왼쪽에 있습니다. 날찍한 터에 파릇파릇한 잔디로 단장하고 담으로 둘러싸였는데, 부도밭은 영락없는 실법

전입니다. 역대 고승들의 숨결이 활활발발한 법문으로 울리는 설법전 말입니다. 부도밭은 몇 개의 석축으로 구획을 나누었는데, 중간 단계 새로 이사 온 부도들이 도열해 있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따로 부도밭이 없어 옛 부도들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을 초월해 직지의 정맥을 증명할 새로운 공간이 마련되었고 면면이 법등을 밝혀 온 스승들의 자취가 허공을 가득 채운 것입니다.

부도밭 중앙의 통로 앞에 키가 낮은 오석(烏石) 몸돌의 비가 서 있습니다. 한글과 한자가 함께 쓰인 '부도전조성기'가 앞뒤로 새겨져 있습니다. 문맥의 훼손을 막기 위해 한자의 괄호를 생략하고 원문 그대로 옮겨 놓습니다.

도량 곳곳에 흩어졌던 부도 한 곳에 모아 정혜 선사 활달자재한 일대기 큰울림 남아

“浮屠는 先師들의 몸이요 혼이다. 그럼에도 歲月이 깊고 庵子는 스러져 풀더미에 뒤덮인 채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에 채이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보다 민망한 일이 따로 없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映虛 緣園和尚이 大衆과 더불어 옛 부도암터 아래 양지바른 곳에 새로운 부도밭을 造成하고 山中에 흩어진 浮屠들을 한 곳에 모아 다시 香火를 만들 수 있게 했다. 極樂殿 뒤편 언덕에 있던 十二基, 能如庵터 입구의 五基, 北庵터 입구 숲속에 있던 四基를 移遷하였으며, 下臺石만 남아 있던 一基는 나머지 부분을 새로 만들어 奉安하였다. 이운 과정에서 三基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도들은 불행하게도 舍利裝置가 遺失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그에 따라 모든 부도의 舍利盒을 白磁로 정성스럽게 다시 만들고 사실을 적은 白磁片을 그 안에 넣어 再奉納했다. 아울러 碑座만 남아 있던 옛 碑石의 遺構에 맞춰 碑身을 깎아 세우고 저간의 사실을 그 위에 새겨 後日의 詳考에 對稱하였다. 이 모든 일들은 戊子年 가을에 시작하여 己丑年 봄에 마무리하였다.

여기는 綿綿히 法燈을 이어온 先師들의 자취가 밝은 햇살 아래 냇물 소리에 귀 기울이는 곳, 저녁노을에 흥건히 물드는 곳, 별빛에 조촐히 젖는 곳. 이곳은 慧命을 밝힌 龍象들의 法音이 바람소리에 섞여 옷깃을 여미게 하는 자리, 心魂을 흔들어 깨우는 터, 心眼을 조용히 눈 뜨게 하는 마당. 江山과 더불어 이 터전이 無窮하리라. 日月과 함께 이 언덕이 長久하리라.”

직지사 성보박물관장을 맡아 본말사의 성보들을 발굴 정리 보존하는데 온 정성을 쏟고 있는 흥선(興善) 스님의 글입니다. 단아한 문장에 직지사 부도밭의 새로운 역사가 다 담겨 있어 한 줄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유실된 사리장치를 대신해 모든 부도에 백자로 만든 사리함에 이운에 즈음한 사실을 적은 백자편을 넣었다는 사실이 감동적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인 모를 부도라 할지라도 불조예명을 받들었던 한 수행자의 흔적이 면면이 직지의 정맥을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백자편에 적은 이운기(移運記)에는 해당 부도가 원래 있던 자리를 밝히고 주인의 식별 유무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발굴과정에 드러난 유물을 비롯한 특기사항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대부분이 주인을 알 수 없는 부도들이어서 직지사를 거쳐 간 수많은 고승들의 자취를 더듬을 수 없다는 점은 끝내 아쉽습니다. 그런 가운데, 높이 쌓여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는 비 하나가 큰 위안입니다. 직지사 조실을 지낸 탄옹당(炭翁堂) 정혜(正慧: 1890~1947) 선사의 비입니다.

반듯반듯한 서체에 먼저 눈길이 멈추고 한 줄 한 줄 읽다보면 웅혼하면서도 정갈한 글맛에 정신을 빼앗깁니다. 정혜 선사의 손상좌 되는 흥선 스님이 글을 짓고 송천 정하건 선생이 글씨를 썼습니다. 명문장에 명필의 조화가 활달자재하게 '직지인심'의 본명(本命)을 뚫었던 선사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비문에 따르면, 경남 함천에서 태어난 정혜 선사는 1910년 12월 20일 해인사로 출가해 제산(濟山);

1862~1930)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속복을 범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제산 스님은 사명 대사의 직속인 우송(友松) 선사의 법을 이어받았으며, 직지사 벽안당에서 17년 동안의 장좌불화로 수행의 사표를 보인 '수행제일'의 조실이었습니다. 그런 큰 스승을 모시고 출가한 정혜 선사는 해인사에서 대교과를 마치고 금강산 장안사에서 한암 스님을 모시고 사교입선(捨教入禪)의 기틀을 다져 20여년간을 성만했습니다.

나라를 잃은 어려운 시기, 정혜 선사는 항일불교 민족불교의 거점이었던 선학원에서도 활약을 했는데 만해 스님이 종종 설법좌를 양보했다는 일화가 정혜 선사의 가풍을 가늠케 합니다. 비문의 중간에 특이한 이력이 있어 한 번 더 읽게 됩니다.


“스님의 教化(교화) 가운데 자못 이채로운 것은 演劇(연극)을 통한 傳法(전법)이다. 1935년 9월부터 11월까지 스님은 朝鮮佛敎聖劇巡禮團(조선불교성극순례단)을 꾸려 대구를 시발로 김천 상주 경주 포항 예천 안동 울산 초량 김해 밀양 등지를 순회하며 4막 7장의 (佛陀의 一代記(불타의 일대기))라는 연극을 공연한 바 있다. 이 공연에는 空超(공초) 吳相淳(오상순) 선생이 함께 참여하였으니, 연극이 단지 허울만 아니었음을 推察(추찰)할 수 있고, 가는 곳마다 성황을 이루었다는 신문기사가 빈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연극이 일상사처럼 가까워진 오늘날에도 쉽게 손대지 못하는 일을 그 캄캄하던 시절에 실행에 옮긴 스님의 앞선 발걸음은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시조와 그림에 조예가 깊었다는 내용과 함께 또 한 줄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습니다.

“스님의 법문에 感化(감화)되어 一世(일세)를 風靡(풍미)하던 一葉(일엽) 스님이 발심 출가하였다 하니 긴 설명이 무에 필요하랴.”



글·사진=임연태(시인·본지논설위원) mian1@hanmail.net




미얀마 연방 공화국

한국주재 미얀마 문화원 대표부 승격

한국주재 미얀마 관광청 대표부 승격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한국에서의 단 하나밖에 없는 미얀마 관광청과 문화원 대표부의 업무를 수행하라는 관광청 장관과 문화부 장관의 인정서를 받고 보니 더욱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미얀마 문화를 알리는 양국간의 교류를 비롯하여 각종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미얀마 연방 공화국 호텔 및 관광부의 지침에 따라 호텔 신축의 상담을 비롯하여 새로운 성지순례 코스의 개척으로 아직도 빛을 보지 못한 성스러운 곳이 많이 있음을 알리는 역할을 충실히 할 것입니다.

전국 각종단과 불교 단체 큰스님을 비롯하여 모든 사찰의 주지스님들의 성지순례에 따른 설명회와 각종 불교 행사 및 봉사활동, 인간방생 법회 등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설명회를 자주 가지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미얀마 정부를 대신하여 성실하게 설명 올려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층 / 미얀마 문화원, 미얀마 관광청 대표부
문화원 : 02)733-5665. 관광청 : 02)733-5670 팩스 : 02)733-5671

타 단체 및 여행사에서 한국내에서 미얀마 관광청 및 관광청 대표부 명칭을 사용하면 법적 책임이 있게 됩니다.